



위대한 전승세대는 노래와 함께 싸워이겼다

환편의 명가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찬란대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

그래서 어떤 력사가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의 전쟁은 어찌 보면 문화예술의 전성기, 문예부흥기를 동반한다고도 하였다.

전시가요들이 오늘날까지도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력사의 페이지에는 가지가지의 전쟁들이 기록되어있으나 1950년대의 조선전쟁처럼 가장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가요 《조국보위의 노래》 (작사 조영출, 작곡 리면상)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제일먼저 불리었고 오늘날 전승세대의 후대들이 애창하고있는 전시가요이다.

가슴에 꿰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에 빛난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이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고귀하고 신성한 부름인 인민의 조국은 어떻게 태어났던가

일제식민지압제의 총칼과 민족말살의 포박을 불살라버린 조국해방에 이어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새 력사, 새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들이 련이어 울리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의것으로 되게 하여준 토지개혁법령, 산업전국의 노래소리를 울려나오게 한 중요산업국유화법령, 울밑에 선 봉선화를 구슬쁘게 노래하던 이 나라의 녀성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안겨주고 새 생활창조의 밝은 길을 열어준 남녀평등권법령...

땅의 주인, 공장, 주인이 된 인민이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선출하여 세상에 돌도 없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미국과 리승만파괴도당은 우리 인민의 이 행방한 생활과 삶의 보급자리를 빼앗으려고 1950년 6월 25일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

학기에 공화국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활화산이

침עה한 사상과 리념의 대결, 가장 극적인 무장장비의 대결, 태어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주권국가를 압살하려고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련합하여 떼를 지어 달려든 치렬한 격전의 레는 찾아볼수 없다. 공화국은 이 준엄한 전쟁에서 위대하고 불멸할 승리를 이룩하였다.

자주와 존엄, 명예를 지켜 조국을 수호한 전승세대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생사존망의 판가리싸움에서 울려퍼졌던 전시가요들을 통해 보고서 한다.

라울랐다.

... 우리의 부모형제 우리가 사는 곳 제국주의침략에 한치인들 밝히라

... 공장과 농촌, 교정, 가는 곳마다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울려퍼진 《조국보위의 노래》는 공화국인민이 터뜨리는 원숙결명의 우렁찬 함성이었고 진정한 삶의 품,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인민의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리라는 수호자들의 맹약이었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동원할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설을 받들고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기상으로 침략자들에게 뒤흔매 안기며 남으로, 남으로 진격해갔다.

적들을 기절초풍하게 한 강력한 타격이었고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눈부신 진군속도였다. 이를 반영한 노래가 가요 《진군 또 진군》(작사 집체, 작곡 황학근)이다.

... 내 조국 침범한 놈 용서



해마다 7월이 오면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곤 한다.

한것은 아버지가 조국해방전쟁참전자여서만이 아니다. 조국을 보위하기 위해 인민군대에 입대한것도 1950년 7월이었고 미국놈들이 매설한 지뢰를 해제하다가 그만 한다리를 상한 날도 바로 1953년 7월이었던때문이다.

산야에 흙보다 파편이 더 많이 쌓이고 강물에는 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던 그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가정이 이 나라에 어디 있으랴만 나는 아버라는 말을 번지기 시작한 때부터 지평이를 걸고다니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어린 가슴에도 원수들에 대한 증오가 짙게 차있었다. 그리고 그 증오가 큰만큼 아버지께 대한 공경도 높았다.

내가 소학교 2학년에 다닐 때의 일이다. 그날 우리 집에서 학습반을 하고있는데 한 아이가 《예들아, 우리모두 집에 가서 아버지들훈장 달고 오지않을래?》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웃음이 나오지만 당시 아버지들을 자랑하고싶은 우리들의 승벽심은 이만저만 아니였다. 동지에서 놓여나 새들마냥

할소나 사랑하는 이 강토를 짓밟은 원수 복수의 총장 높이 들고 무찌르러 나아간다

... 영웅한 인민군대는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1950년 7월 5일에는 오산에서 맞대미군의 《스미스투군대》를 몇 시간만에 완전소멸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상승사단》이라고 자랑하던 미제24사단을 대전에서 완전소멸하는 현대조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딱겼하던 미제와 리승만파괴도당은 3일만에 서에서 쫓겨나고 8월에는 포항과 대구, 마산을 련결하는 협소한 지역을 3번으로 포위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미국의 언론들까지도 《현실은 강대한 미국의 무력이 어떻게 희망없는 가벌척절한 전쟁을 진행하고있으며 가장 작은 국가인 북조선군대가 어떻게 미국군대를 격파하며 바다로 몰아넣고있는가를 실증하고있다.》라고 개탄하였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침략자들의 운명은 달리 될수 없다는것을 가요 《비행기사냥군조의 노래》(작사 리선용, 작곡 윤승진), 《해안포병의 노래》(작사 석팔봉, 작곡 박한규)가 전하여준다. 그러나 공화국인민은 미제와 맞서기만 한것이 아니라 때려부셨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무엇을 믿고, 무슨 힘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범동농민의 대화를 다시 펼쳐보고자 한다.

《북조선에서는 쓸어도 남을것이 하나도 없게》 활겼이라고, 공화국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미제

는 비행기와 함포로 공화국의 전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폭격, 포격을 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히로시마를 취재했던 오스트리아의 작가이며 기자인 월프레드 베헤르트는 조선에 와고고는 《히로시마는 파괴된 한개의 도시에 불과하지만 조선은 말 그대로 온 나라가 통째로 폐허로 되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평양시의 인구는 37만명이었다. 그런 평양에 남은것이란 두개 건물뿐이었다.》라고 썼다.

이 땅을 재더미로 만들려는 원수들의 폭격, 포격이 얼마나 극심했기에 대해 한 시인은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이 라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남북삼천리에 재더미만 남았다고 토로하였다.

아, 강철의 령장!

조선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화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많았어도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나라가 원자탄까지 보유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타승할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인류는 도대체 작은 나라인 조선이 어떻게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는 미국과 맞서는가, 맞섰지만 해도 기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인민은 미제와 맞서기만 한것이 아니라 때려부셨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대 로인님은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갔나?》 《북으로 가시오. ...군대 동무들과 같이 김일성장군님

하지만 불길속에서, 연기속에서도 인민은 살아있었다. 전선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 식량 등을 보내기 위해 낮과 밤을 모르고 싸우는 후방인민들의 불굴의 모습은 가요 《어서 보내자》, 《آمد 강 2천리》, 《열루스야 어서 가자》, 《샘물에서》, 《풍년맞이 도리개》, 《승리의 씨앗》 등에서 잘 알수 있다.

이렇게 싸우는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가벌척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들이 울려퍼진 전시가요들은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불굴의 조국수호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를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강한 정신력을 분출시키고 전투장마터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대 이 탄리통에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가십니까?》

《왜 찾아가다니요?! ... 장군님을 찾아가자 살일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소.》

《로인님, 그런데 로인님의 생각에는 우리 인민군대가 전쟁에서 이길것같습니까?》 《이거지요. 이기고말구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 어거지요!》

이것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이었고 전쟁의 운명에 대한 확신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전쟁을 도발한 첫날에 벌써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다.

6월 25일 내각비상회의에서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달기게 우습게 압니다. 승냥

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 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겁내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즉시적인 반공격전으로 침략자들을 소탕하여야 한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놀라움과 경탄, 환희로 회의장을 들끓게 하였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군림한 미제를 무분별하게 날뛰는 한강 승냥이로 보시고 몽둥이질질로 조선사람의 본모를 보이시려는 무비의 배짱과 담력, 원수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하며 즉시적이기도 단호한 반공격전으로 침략자들을 소멸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의지는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를 담은 노래가 바로 《우리의 최고사령관》(작사 김복현, 작곡 김원권)이다.

오늘도 부대는 원수를 부시고 들고 강물 산발물 넘는다 나가는 진두에 언제나 그 모습 용맹을 부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의 부름에 원수를 부시고 그이를 모시고 승리를 노래 하리

... 김일성장군, 그이는 위대한 조국지사라는것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불변의 신조 이기에 조국의 한치땅을 지켜 목숨을 바치고 쓰러지면서도 심장의 더운 선혈로 이 땅을 적시었다.

이 땅이 왜 그리도 붉은가를, 무엇보다에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승리를 위해 청

추도 생명도 아깝없이 바쳐 싸웠는가를 노래 《결전의 길로》(작사 석팔봉, 작곡 김옥성)가 보여주고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바친 영웅전사들이 바란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값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것이였다.

하기에 군대와 인민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총성심을 지니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묵혀 한복속 서슴없이 바쳐 조국을 사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39(1950)년 12월의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에게 이런 교시를 주시였다.

전쟁이란 신념과 의지의 대결이고 동시에 정열의 대결이기도 하다. 우리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아무리 준엄한 시련앞에서도 웃으며 전쟁을 해야 한다. ...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넘쳐있는 인민은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헤치며 반드시 승리를 이룩한다.

적아간의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조선의 고지마다에서는 언제나 인민군인들이 부르는 조국과 고향에 대한 노래, 승리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졌다.

사랑하는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하는 내 고향은 살기 좋은 곳이었네 수령님이 주신 땅에 봄이 오면 씨뿌리고 단풍도는 가을이면 오목배과 거두었네

...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작사 집체, 작곡 리면상)은 원수 미제를 쳐부시고 가슴가득 위훈의 금별메달과 훈장을 달고 사랑하는 부모 처자의 품에 안기려는 수호

자들의 심장이 터친 애국의 선물이였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 친우들과 이웃들을 싸움터로 떠나보내며 조국을 사수하고 영웅되여 돌아오라고 당부하던 고향의 혈육들과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실은 《승리하고 돌아오라》, 《물레야 동무야》, 《아무도 몰라》 등의 노래들도 전선과 후방에서 끝없이 울려퍼졌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렇듯 노래를 부르며 전쟁을 이겨냈고 노래와 함께 승리하였다.

전승의 촉포성과 함께 위대한 승리자들의 노래소리도 높이 울리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고지들과 하늘과 바다에서 사랑하는 조국강토 용감히 사수하여 원수들을 쳐부시고 우리는 승리했네

... 정녕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 열정과 량만으로 태어난 전시가요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께 드리는 송가였고 승리의 찬가이다.

... 전승의 촉포성을 터친 그날로부터 어느덧 세월은 70년의 너른을 새기고있다.

그러나 전한의 나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에 울리던 전시가요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운 위대한 전승세대의 위훈과 공적을 길이 전하며 오늘날도 세기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만약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제2의 6.25를 강요하려 한다면 전승세대의 후손들이 《조국보위의 노래》를 부르며 용약 전선으로 나아갈것이 《결전의 길로》를 높이 부르며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 새 세기의 전승세대,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기개와 본모를 남김없이 보여줄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지 힘들구나. 그렇다고 영예군인대우나 받으면서 집에 편히 앉아야 할것 아니냐? 이 심장이 뭉개지지 않게 보낼것을 부탁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였다. 나는 머리가 희숙희숙한, 지평이를 걸고 힘들게 걸고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뜨거운것을 삼켰다. 정말이지 그날의 아버지모습은 평생 잊을수가 없었다.

그렇다.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용당한 본분으로, 더없는 영광으로 안고 산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깨끗한 량심과 끝없는 애국으로 빛났어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후대들에게 말하고있다.

조국을 사랑하라! 조국을 빛내라!

나는 전세대들의 이 당부를 가슴에 새겨안고 준엄한 날이나 행복한 날이나 변함없이 조국을 받들어온 아버지처럼, 전쟁의 재더미속에서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운 혁명전선들처럼 위대한 김정은선생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류원규

수기 아버지의 초상

그날만은 인차 잠들지 못하고 궁상거렸다. 다들 영예군인이라고 생각 해주는데 아버지는 왜 싫다고 할가? 그것은 당시 9살밖에 안되던 내가 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숙제였다. 그후에도 아버지는 영예군인회장을 달고 다니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식당이나 상점에 가서도 언제나번 영예군인이라고 특전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가 앞가슴에 영예군인회장을 달고 나섰던것이다. 《난 전국영예군인에술출전에 참가하게 됐다.》

남아시어 내가 승화리에 진행된 전국영예군인에술출전이 끝나고 돌아온 아버지는 몹시 흥분해서 격정을 터놓았다. 《글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변변치 못한 우리 영예군인들의 공업을 보아주실줄을 어찌 알

았느냐. 그분들을 뵈옵는 순간 나라에 보람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영예군인이라고 우대만 받는 내자신이 얼마나 죄스럽던지.》

뜰눈으로 밤을 새운 아버지는 새벽이 밝아 올 때까지는 잠을 보지 않았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밤늦게 퇴근하곤 하였으며 그나마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나와 어머니 함께 밥을 먹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던 나는 울음은 심을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그분들을 뵈옵는 순간 나라에 보람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영예군인이라고 우대만 받는 내자신이 얼마나 죄스럽던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처럼, 전쟁의 재더미속에서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운 혁명전선들처럼 위대한 김정은선생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랑에 여덟었다. 가령 내가 《우리 아버지진 영예군인이야!》 하고 삐뚤어진 인민군대 관관, 과학자, 큰 기업소 기사장을 하는 아버지들을 둔 아이들도 입을 다물었다. 어느날 그 자부심을 허물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 아침, 전쟁시기 함께 싸웠던 전우를 찾아가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는데 정류소에 사람들이 많았다. 《아버지, 앞술에서 자요!》 내가 당연한것처럼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뒤 줄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이 저저마다 먼저 그러고 권하였지만 아버지는 끝내 줄을 서서 뺄에 올랐다. 저녁무렵,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엄하게 일했다. 《이녀석, 이 아버지가 뭘 잘 낫고 그러느냐. 영?》 나는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그랬는데 이런 반응을 들을줄은 몰랐던것이다. 하지만 성난 아버지를 보자 가슴속에서 교배하던 감정이 묵구멍으로 뿔뿔 넘어가고말았다. 《다시 또 그러면 안된다. 알겠나?》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가